『기독교사회윤리』 제64집
(2026) 11~40

AI 시대의 노동문제와 기독교윤리*

고재길(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II.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의 특징
1. 산업혁명의 과정과 특징
2. AI 시대와 그 특징

III. AI와 사회문제로서의 노동문제

IV. AI 시대의 노동문제의 쟁점
1. 노동 종말론
2. 노동 유토피아론

V. AI 시대의 노동윤리와 기독교
1. 노동의 새로운 이해
2. 새로운 노동윤리와 기독교

V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6.64.01

* 위 논문은 2026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www.kci.go.kr

• ABSTRACT •

Labor Problems and Christian Ethics in the AI Era

Professor, Ko, Jye Gil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Aft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I has had a great influence on human life. However, in the AI era, the flexibility and instability of labor are accelerating and intensifying. The solution to labor problems comes from a new understanding of labor, the humanization of labor, and the humanization of society. Existing labor ethics evaluates the value of labor based on necessary and wage labor. Now, it is necessary to aim for respect for value-oriented labor, improvement of inhumane working conditions, and formation of humane working conditions at the social level. The Bible and Theology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al freedom'. Freedom for the other is the theological basis of 'real freedom', and healing and care for the socially weak is a form of value-oriented labor. Humans participate in God's new creative actions through labor. Here, respect for value-oriented labor, reform of inhumane working conditions, and basic income based on social policies for the weak are very persuasive. The new Christian labor ethics practiced to solve labor problems in the AI era cannot be overemphasized.

Key words: AI, Labor Issues, Humanization of Work, Basic Income, Christian Labor Ethics

www.kci.go.kr

I. 들어가는 말

최근 자주 회자되는 용어가 있다. AI(Artificial Intelligence), AI 시대, 즉 인공지능, 인공지능 시대가 바로 그것이다. 인공지능이란 용어는 1956년에 개최된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의 컨퍼런스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다. 2016년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었던 세계경제포럼은 인공지능의 등장을 4차 산업혁명과 연결한다. 새로운 기술혁명의 특징은 다음의 개념들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3D 프린팅, 나노기술, 생명공학, 재료공학, 에너지 저장기술, 퀀텀 컴퓨팅- 안에서 잘 드러난다.[1] 그러면 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AI는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AI 시대에서 인간의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을까? AI 시대에서 인간은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의 주장처럼 '노동의 종말'[2]을 전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인가? AI 시대의 인간은 더 이상 노동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탈노동의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이러한 노동문제의 쟁점은 단순히 학문적인 토론의 주제만은 아니다. 그 쟁점은 인간의 존엄한 삶의 유지나 또는 향유와 분리될 수 없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 혁명은 인간의 삶에 큰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인간의 삶을 뿌리까지 흔들고 있다. 인간의 일자리는 AI 노동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통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는 일자리는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서 보완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3] 그러나 사라지는 속도와 보완되

1)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클라우스 슈밥/송경진 역, 『클라우스 슈밥의 제 4차 산업혁명』(서울: 메가스터디북스, 2016).

2) 제레미 리프킨/이영호 역, 『노동의 종말』(서울: 우리 민음사, 2005), 22.

3) 이 주장에 의하면 AI는 인간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로 바꾼다. 이민화, "인공지능과 일자리의 미래," 『국제노동브리프』 14(2016/6), 20. 곽호철, "실낙원에서 복낙원으로의 귀환: 인공지능과 노동, 그리고 기본소득," 「신학사상」 151(2018), 113에서 재인용.

www.kci.go.kr

는 일자리의 속도는 비례하지 않는다.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교육과 견습에 필요한 시간을 생각한다면 실업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실업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와 사회의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일터와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보는 기독교의 관점은 AI 시대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개인의 실업과 공동체의 대량 실업이 나타날 때, 기독교신학과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일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존의 신학적 연구들이 있다. 김기석은 인공지능을 신학적 인간학의 관점에 비추어서 분석한다. 그는 여기에서 특별히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공지능의 자유의지에 대한 비교를 시도함으로써 기독교적 인간의 본질을 정립한다.[4] 김동환은 인공지능을 하나님의 형상과 연관시켜 분석하는 신학적 담론의 가능성과 방법을 모색한다. 이 연구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에 기초하여 생명의 영원성을 추구하는 인공지능의 목표를 비판한다.[5] 김희자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회교육의 시대적 적합성을 추구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여기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교회교육의 유익을 위한 인공지능의 순기능에 대해 다루어진다.[6] 곽호철은 기독교윤리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분석하면서 노동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한다. 그는 이 연구에서 무급노동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7] 이봉석은 인공지능이 초래한 노동의 종말현상에 대해 연구한다. 그에 의하면 인공지능시대가 요구하는 노동신학은 기존

4) 김기석, "기독교본질에 대한 인공지능의 도전 및 대처방안," 「개혁주의 이론과 실천」, 27(2024), 59-96.

5) 김동환, "AI(인공지능)에 대한 신학적 담론의 형성 및 방향 모색," 「신학연구」, 60(2016), 35-60.

6) 김희자, "융합문화시대의 기독교 인공지능 시스템교육," 「기독교교육정보」, 40(2014), 1-37.

7) 곽호철, "실낙원에서 복낙원으로의 귀한: 인공지능과 노동, 그리고 기본소득," 「신학사상」 151(2018), 109-140.

www.kci.go.kr

의 노동개념의 수정과 전환에서 가능하다.[8] 필자의 연구는 선행연구의 관점을 공유하면서도 넘어선다. 본 연구는 제 4차 산업혁명, AI 시대의 특징, 그리고 실업문제 및 노동의 인간화라는 세부적인 주제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즉, 필자는 AI 시대에 나타나는 노동문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노동문제는 AI 시대에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문제가 된다. 문제의 해결은 개인적 차원에서만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AI 시대에 필요한 기독교노동윤리의 관점을 정립하는 일에 도움을 줄 것이다.

II.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의 특징

1. 산업혁명의 과정과 특징

산업혁명은 인간의 삶의 자리에 급격한 변화와 위기를 가져왔다. 1차 산업혁명에서 시작된 변화와 위기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지나는 과정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1차 산업혁명은 헝가리의 경제사학자인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견해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에 나타난 대변혁the Great Transformation)이었다. 1760년~1830 사이에 나타난 기계의 등장은 인간의 삶 가운데 대변혁을 가져왔다. 인간의 수공업적인 소규모 노동에 기초한 생산력은 기계를 통한 공장제식 대량 생산력으로 대체되었다. 이와 같은 산업혁명은 "새로운 지배자와 피지배자, 유산자와 무산자를 탄생시키고 빈부격차를 만들어내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완성"했는데 대변혁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9] 인간의 삶은 대변혁의 시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갔고 마침내 거대변혁(The Greater Transformation)의 지점까

8) 이봉석, "인공지능과 로봇기술로 인한 노동종말의 시대: 의식개혁을 위한 기독교노동신학의 정초," 「신학과 실천」 93(2025), 735-761.

9) MBN 일자리보고서팀, 『제 4의 실업』(서울: 매경출판, 2017), 117-118.

www.kci.go.kr

지 이르렀다.

> 대량생산, 대량소비, 규모의 경제, 선택과 집중의 현대사회가 도래했다. 하지만 이것 역시 1990년대부터 무너지고 만다. 20세기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지는 거대변혁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폴라니가 제시했던 '대변혁'을 뛰어넘는 '파괴적 변화'가 엄습하고 있다. 지구촌의 모든 산업과 지구인 모두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대변혁이다.[10]

그러면 거대변혁, 즉 '파괴적 변화'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파괴적 변화'는 구체적으로 대규모의 실업을 의미한다. 인류는 1차 산업혁명부터 3차 산업혁명에 이르는 동안 제 1의 실업, 제 2의 실업, 그리고 제 3의 실업을 경험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은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제 4의 실업이라고 하는 '파괴적 변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나타난 대변혁과 거대변혁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의 특징 및 노동환경 비교〉[11]

구 분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공업화 사회)	3차 산업혁명 (정보화 사회)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시 기	18세기	19~20세기 초	20세기 후반	21세기
특 징	기계화	대량생산 자동화	정보화	지능화, 융합
대표기술	증기기관	전기 화학에너지	컴퓨터,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노동환경	농업일자리 감소 공업일자라 증가	생산단계별 분업 공정의 표준화	생산성 향상, 고용 증가	개방형 소통 플랫폼

10) 위의 책, 118.

11) 엄효진 이명진, "인공지능(AI) 기반 지능정보사회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 경제사회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Information Society & Media* 21/, No. 2(2020), 10.

www.kci.go.kr

그러면 정보화 사회(3차 산업혁명)와 지능정보사회(4차 산업혁명)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보화 사회의 기술은 양적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질적 차원에서는 조력기능을 갖는다. 반면에 지능정보사회의 기술은 양적 차원에서 자료의 연계와 통합을 지향하고 질적 차원에서는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갖는다.[12]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점은 "기술이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게 됨에 따른 각종 형태의 사회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소수에 의한 "정보 독점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지배계급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술 격차에 따른 양극화가 강화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13]

2. AI 시대와 그 특징

2016년은 인류가 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사실이 선언되었던 시기였다. 2016년에 스위스에서 개최되었던 세계경제포럼이 그와 같이 선언한 지 거의 1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다. 또한 2016년은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바둑대결이 있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이 바로 그것이다. 알파고의 승리로 끝난 대결은 4차 산업혁명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2023년에 등장한 챗GPT는 AI시대의 혁명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AI 혁명은 이전의 산업혁명과 비교할 때 근본적으로 다른 혁명이다. 증기기관(1차), 전기와 컨베이어벨트(2차) 컴퓨터와 인터넷(3차)에 기초한 혁명은 인간의 노동력의 개선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AI의 거대변혁(4차)은 "인간의 지식노동과 창의성까지 모방하고 확장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었다.[14]

12) 위의 논문, 7.
13) 위의 논문.

www.kci.go.kr

> 과거 AI가 특정 영역에서만 인간을 능가했다면, 지금은 언어 이해와 생성, 문제 해결, 창의적 작업까지 인간 수준에 근접하거나 넘어서고 있다. 2023년 등장한 GPT-4는 변호사, 의사, 프로그래머 등 전무직 시험을 인간 상위 10% 수준으로 통과했다. 2024년에는 일반화된 AI 모델들이 등장해 단일 모델로 텍스트, 이미지, 음성, 동영상을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15]

이와 같이 발전된 AI는 크게 두 가지 형대로 나뉜다.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이 그것이다. '약한 인공지능"은 반복적인 인간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며, 이것을 위한 "합리적인 시스템에 기반을 둔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반면에 '강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의 기술과 빅데이트를 연동함으로써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최근에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강한 인공지능'은 주체적인 학습능력을 바탕으로 이미 만들어진 규칙을 벗어나서 능동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강한 인공지능'은 높은 차원의 의사결정을 포함해서 인간의 능력을 대체할 수 있다, 인간과는 달리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춘 '강한 인공지능'이 완성한 결과물이 인간의 창작물이나 또는 발명과 거의 비슷할 경우, 이것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다.[16]

그러면 AI 시대에 진입한 오늘의 상황 속에서 인간이 마주하는 AI 기술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의 구체적인 특별한 성격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삶을 바꾸는 변화의 키워드에서 찾을 수 있다. 변화의 핵심 키워드는 '하이퍼 세상(Hyper World)'이다.

---

14) 노규성,『AI 뉴딜』(파주: 광문각출판미디어, 2025), 29.

15) 위의 책, 29.

16) 엄효진 이명진, "인공지능(AI) 기반 지능정보사회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 경제사회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5.

www.kci.go.kr

> 하이퍼는 '초과', '뛰어 넘는다'는 뜻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차원을 넘어선 세상, 공상과학 속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초현실의 구현을 뜻한다. 이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사회, 초지능사회, 초산업사회로 통하는 하이퍼 세상, 즉 3H 시대를 탄생시키게 된다.[17]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에서는 인간과 기계가 연결되고 기계와 기계가 이어지고 기계와 우주가 연결된다. 초지능사회(Hyper-intelligent Society)는 기존의 기계가 AI 기술을 갖게 되면서 인간의 말을 이해하고, 인간에게 적합한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초산업사회(Hyper-industry Society)에서 기존의 산업 모델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으며, 비즈니스의 형태도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18] 3H의 특성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먼저, 1H 초연결성은 (1) 온-오프라인을 하나로 만든다. (2) 돈이 되는 빅데이터 시대를 만든다. (3) 빅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관리한다. (4) 1,000배 빠른 '5G 시대'가 열린다. (5) '스마트 기기' 천국이 열린다. (6) 초연결성이 기업의 미래를 결정한다. 둘째, 2H의 초지능화는 (1) 기계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 (2) AI가 사람을 앞서기 시작한다. (3) 기계가 스스로 학습한다. (4) AI가 인간 의사의 진료를 돕는다. (5) AI가 개인의 삶을 돕는다. (6) AI가 변호사, 회계사의 능력도 넘본다. (7) 챗봇이 비즈니스 혁명을 일으킨다. 마지막으로 초산업화는 (1) '무인 공장'이 제조혁명을 일으킨다. (2) '1인 1품' 생산 시대가 열린다. (3) AI가 사람의 입맛을 결정한다. (4) 물류자동화로 부품을 무인 운송한다. (5) 물류의 '완전 무인화' 시대가 열린다.[19]

---

17) MBN 일자리보고서팀, 『제 4의 실업』, 20.
18) 위의 책, 20.
19) 위의 책, 22-41.

www.kci.go.kr

III. AI와 사회문제로서의 노동문제

AI는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인간의 단순 노동이 AI로 대체되면서 인간은 일상의 삶에서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을 받는 알바생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있고, 은행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기존 일자리의 축소와 사라짐이 개인의 능력에 따른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더 크다. 그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노동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제, 즉 사회문제로 생각되어야 한다. 사회문제는 사회제도 또는 사회구조의 결함과 모순에서 생기는 문제를 의미한다. 사회문제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과는 무관하게 존재한다. 즉, 사회문제는 '객관적 실재(object reality)'로서 사회구원성들의 외부에 존재한다.[20] 이러한 사회문제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회적 상황이 그 사회의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나타나고, "그 사회적 상황이 집단적 행동에 의해서 치유될 수 있을 때" 발생한다.[21]

그러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회문제는 AI 시대의 노동의 영역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다시 말해서, AI 시대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로서의 노동문제는 무엇일까? 이 질문들에 대해 최근의 연구는 아래와 같이 요약하고 있다.

AI 디지털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과거의 일자리가 내재하고 있던 구조적인

20) 김영일,『윤리적 삶의 길』(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76.
21) 위의 책, 77.

www.kci.go.kr

> 문제들을 표면화하고 그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낮고 취약한 계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근로계약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 그러나 기업들이 추진하는 무인화, 자동화는 이들 일자리를 더욱 줄일 것이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보수와 소득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노동시장의 주요변화는 원격근무의 활성화, 전자상거래 등의 디지털 플랫폼의 확대, 자동화와 AI 도입의 가속이다.[22]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이것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실업에 대한 조사연구는 사회문제로서의 노동문제가 갖는 심각성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AI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대량실업을 가져왔다. 예를 들면 독일의 아디다스는 600명의 직원이 감당했던 일을 10명이 담당하게 하였고, 골드만삭스는 2000년에 600명의 주식 트레이더의 수를 2017년에는 단 2명으로 단축하면서 임직원의 수의 25%를 컴퓨터 기술자가 대체하도록 했다.[23] 다보스포럼의 조사, 〈직업의 미래〉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까지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수는 200만개 정도이다.[24] 그때 일자리를 상실한 520만 명의 노동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있을까? 2023년 옥스퍼드대학 연구팀의 조사결과는 미국의 일자리 가운데 약 47%의 일자리가 앞으로 20년 안에 AI에 의해 자동화될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2025년에 그와 같은 위험은 이미 콜센터 상담원, 데이터 입력원, 번역가, 경리직 등에서 일어났다.[25]

---

22) 윤동열, "AI 디지털 전환시대, 노동시장과 일자리 변화," 「월간 공공정책」 237(2025), 29.

23) 최은수, 『4차 산업혁명 그 이후: 미래의 지배자들』(서울: 비즈니스북스, 2018), 131,

24) MBN 일자리보고서팀, 『제 4의 실업』, 19.

25) 노규성, 『AI 뉴딜』, 32

www.kci.go.kr

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아세안의 성장과 일자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변화 산업〉 보고서는 동남아 5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에서 일하는 1억 3,700만 명의 노동자들이 AI 로봇과 자동화기기의 보급을 통해 해고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것은 향후 20년이 지나지 않아서 전체 노동자들의 일자리의 56%가 일자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6]

노동영역의 실업문제는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서 국내의 일자리의 52% 정도가 AI 컴퓨터 기술로 대체될 것이며 이것은 노동현장의 위험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한다.[27] 국내의 경우에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AI가 향후 5년간 약 3만 4천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일자리의 감소가 예측되는 고위험의 직업군 중에는 금융권 인력도 포함된다. 이것은 단순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전문직 노동자들도 해고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8]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의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일자리 증감여부, 수행업무변화)에 대한 직업인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44.7%가 AI의 첨단기술로 인해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군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자들이 해고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와는 달리 응답자의 13%만이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간보다 더 명석한 AI의 등장은 이와 같은 노동문제와 실업의 쓰나미를 경고하고 있다.[29]

물론 AI 기술이 기존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AI 기술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세계경제포럼

26) MBN 일자리보고서팀,『제 4의 실업』, 134.
27) 위의 책.
28) 노규성,『AI 뉴딜』, 32.
29) MBN 일자리보고서팀,『제 4의 실업』, 132.

www.kci.go.kr

(WEF)의 조사에 따르면 향후 2030년까지 약 9,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겠지만 약 1억 7천만 개의 새로운 직업이 새로 생겨날 것이라고 예고한다.[30] 한국고용정보원의 2024년의 조사는 AI의 도입으로 사라진 일자리의 수는 약 32만 개이지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것은 약 41만 개였다.[31]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이와 같은 조사결과가 "수치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새로 생기는 일자리 대부분이 고급 기술과 높은 교육 수준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32] 또 다른 문제는 일자리가 감소되거나 사라지는 속도와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의 속도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나타난다. 여기에서 노동자들의 과도기적인 실업과 생활의 불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AI에 의해 창출된 새로운 일자리가 가져오는 삶의 문제는 더 실제적이며 이것은 사회적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의 위기를 직면하게 한다.

IV. AI 시대의 노동문제의 쟁점

1. 노동 종말론

노동문제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노동 종말론과 노동 유토피아론이다. 첫째, 노동 종말론은 AI에 의존한 결과, 인간의 노동은 일자리의 감소를 통해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견해이다.[33] 둘째, 노동 유토피아론은 AI를 통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또는 기존의 노동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이다. 그러면 AI 시대에서 인간은 어떠한 유형의 노동을 하게 될까? 플랫폼 노동(platform

30) 오나영, "AI 시대의 노동과 불평등," 「월간 한국노총」 .611(2025,05), 43.
31) 노규성, 『AI 뉴딜』, 36.
32) 오나영, "AI 시대의 노동과 불평등," 43.
33) 20세기 후반에 리프킨은 정보사회가 필연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노동에 대한 종말을 이미 예고하였다. 제레미 리프킨/이영호 역, 『노동의 종말』, 22.

www.kci.go.kr

work)은 AI 시대에서 노동의 종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노동의 형식이다. 플랫폼 노동은 AI 시대의 새로운 경제적인 사업모델이다. 플랫폼 노동이란 다양한 사용자들을 매개하는 인프라 구조를 만들어서 네트워크 효과를 유발하는 노동을 의미한다.[34] 다양한 형태의 사업 부문에서 가속화되며 확장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의 성장은 독점적 지배권을 사업현장에 행사하기 위한 경제전쟁을 하게 만든다. 이것은 지구촌 전체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35] 플랫폼 노동의 대표적인 노동은 "광고 플랫폼, 클라우드 플랫폼, 산업 플랫폼, 린 플랫폼"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직업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플랫폼 노동에서는 노동의 기회를 갖는 것이 불안정하고, 노동자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둡고, 직업 변경을 위한 재교육의 학습기회도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36]

노동의 종말 현상에서 비롯되는 노동의 불안정성은 새로운 형태의 계급 또는 계층을 만들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위험 노동에 노출된 프레카리아트(precariat)이며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자 계급 또는 계층에 포함되지 않은 존재이다. 그 이유는 "고용/실업이라는 기준과 렌즈로는 포착되지 않는 불안정한 이들의 숫자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37] 프레카리아트는 노동자들의 존재방식을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바꾸고 있으며 그들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와 생산방식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프레카리아트가 "형성 중인 계급(Guy Standing)" 또는 "쓰레기가

34) 닉 서르닉/심성보 역,『플랫폼 자본주의』,(서울: 킹콘북, 2020), 54.
35) 김종진, "디지털 플랫폼노동 확산과 위험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125(2020), 299.
36) 이하준,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철학. 노동의 종말과 노동 유토피아를 넘어서," 「철학논총」 116 제2권(2024), 140.
37) 정윤희, "불안정은 영혼을 잠식한다. 노동의 불안정성과 프레카리아트의 존재론," 「독일언어문학」 91(2021), 284.

www.kci.go.kr

되는 삶에 놓인 잉여적 존재(Zigmunt Bauman)"로 규정되는 현실은 프레카리아트의 비인간적인 삶의 조건이 갖는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38]

2. 노동 유토피아론

노동 유토피아론은 노동 시간의 단축과 연관된다. 노동 유토피아론은 노동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가리킨다. 최근 해외에서 발표된 미래의 노동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AI 첨단기술의 발전은 인간들에게 탈노동 중심의 노동 유토피아를 기대하게 만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 기계에 의한 노동 대체 속도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속도보다 현저히 커서, 궁극에는 거의 모든 인간의 노동을 흡수해 자동 기계화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39] 미국의 실리콘 벨리의 연구진들과 서구의 진보 지식인들은 미래의 노동을 '완전 자동화된 화려한 공산주의(Fully Automated Luxury Communism)'와 바로 연결시켜서 말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화려한 공산주의'는 "이른바 자동화와 '탈'노동의 유토피아적 미래 사회 전망이다."[40]

> 인공지능 등 선진 기술로 인해 미래 인간은 임금노동의 굴레로부터 해방되고 재화의 희소성을 풍요로 대체하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고 여가를 즐기며 자아실현도 꾀하는 '탈노동'의 유토피아적 세계에 도달한다.[41]

그러면 탈노동의 사회를 기대하는 노동 유토피아론을 가능하게 하는 규범적 기초는 무엇일까? 그 토대는 "완전히 자동화된 탈노동 경제체제로

38) 위의 논문.
39) 이광석, "AI 시대의 유령 노동. 21세기형 인형 눈알 붙이기. 인공지능 자본주의의 또 다른 예속 경계할 때," 「신문과 방송」 (2021), 72.
40) 위의 논문.
41) 위의 논문.

www.kci.go.kr

의 전환, 곧 완전 고용의 신화를 버리고 '완전 실업' 정책을 요구"하는 데서 형성된다. 또 하나의 규범적 토대는 노동 그 자체를 인간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노동철학의 전환에서 나타난다.[42] 후자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연관된다. 토마스 모어는 이미 그의 저서 『유토피아』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노동 시간을 6시간으로 말했다. 토마스 캄파넬라는 그의 저서, 『태양의 나라』에서 이상적인 삶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 4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43] 폴 라파르그는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노동종교(religion of work)의 해체와 하루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3시간이라고 강조했고, 윅스는 노동을 인간의 "가장 고결한 소명이자 도덕적 의무로 보는 이데올로기"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44] 노동시간의 단축을 주장하는 이 견해는 탈노동과 노동해방을 강조하는 견해보다는 보수적이고 온건하다. 탈노동이 강한 의미의 노동 유토피아론이라고 한다면 노동시간의 단축은 약한 의미의 노동 유토피아론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인간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된다.[45]

V. AI 시대의 노동윤리와 기독교

1. 노동의 새로운 이해

AI 기술은 노동현장의 급격한 변화와 노동자에게 삶의 불안정성을 가

42) 이하준,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철학. 노동의 종말과 노동 유토피아를 넘어서," 143.
43) 토마스 모어/김남우 역, 『유토피아』(서울: 문예출판사, 2011), 토마소 카파넬라/임명방 역, 『태양의 나라』(서울: 이가서, 2012), 위의 논문. 142에서 재인용.
44) 폴 라파라그/조형준 역, 『게으를 수 있는 권리』(서울: 새물결, 2013), 27. 케이시 윅스/제현주 역,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일하는가?』(서울: 동녘, 2016), 161.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45) 위의 논문.

www.kci.go.kr

져왔다. AI 기술은 인간의 노동을 평가절하하고 있으며 이 현상은 앞으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오나영이 지적하고 있듯이 "AI와 자동화에 노출된 직업군에서 실질임금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기술이 인간을 대체할수록 인간 노동의 가치는 더 낮게 평가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46] 이 지적은 아래에서 더 큰 설득력을 갖는다.

> 맥킨지는 AI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70% 이상이 상위 1%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부의 편중만이 아니다. 기술을 소유한 이들은 데이터, 연산 능력, 알고리즘이라는 새로운 권력을 손에 쥐게 된다. 즉, 기술 시스템 설계 권한과 사회 규칙을 좌우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점점 더 'AI 계급사회'로 들어서고 있다.[47]

새로운 권력의 소유자들 앞에서 사회유지를 위한 필수 노동의 가치는 하락한다. 이것은 AI 기술이 만드는 또 하나의 모순이다. 예를 들면 돌봄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 그리고 배달 노동자는 사회유지에 꼭 필요하다. 이 노동은 첨단기술의 시대에도 인간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AI가 100%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돌보고 청소하고 배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노동자들은 AI의 엄격한 통제와 감시를 받으면서 떠빠른 속도로 충분한 휴식 없이 일하는 노동의 악조건 속으로 내몰린다. 콜 센터 노동자들은 그들의 미세한 감정의 표현까지 분석 당하고 점수로 평가받는다. 배달 노동자들은 플랫폼이 정한 시간에 배달하기 위해 신호무시와 속도위반도 감수한다. 여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노동'과 '쉽게 교체될 수 있는 사람'의 노동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난다,[48]

---

46) 오나영, "AI 시대의 노동과 불평등," 43.
47) 위의 논문.
48) 위의 논문.

www.kci.go.kr

그러면 AI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폄하되고 훼손될 때, 노동하는 인간의 인간다운 삶은 어떻게 될까? 인간이 노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경험할 수 없거나 또는 노동이 인간의 자아실현을 더 이상 보장하지 않을 때,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어떻게 보존될 수 있을까? 그것은 노동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새롭게 규정할 때 가능하다. 근대사회의 노동개념은 필요노동과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필요노동은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노동을 말한다. 여기에서 직업은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 된다. 임금노동은 노동을 한 후에 노동의 대가를 받는 노동을 의미한다. AI 시대에서는 필요노동과 임금노동에 대한 기존의 견해가 전환되어야 한다. 노동의 새로운 이해는 필요노동만을 위한 일자리 보전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인간이 필요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 노동 및 자유 선택적 취향 노동"과 부가가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치지향 노동"과 같은 노동개념의 확대[49]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견해는 노동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Max Weber)의 저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필요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보다는 필요노동의 유지를 더 강조한다. 베버는 바울서신의 말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 3:10)"-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무조건적인 계명이라고 주장한다. 베버에 의하면 개신교윤리는 칼뱅(John Calvin)의 예정론에 근거하여 노동 의욕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단언하고 있다.[50] 그렇지만 이와 같은 관점은 일자리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실질임금이 축소되고 있는 노동문제 앞에서 필요노동과 임금노동만을 계속 강조할 수 있을까? 강원돈의 견해에 의하면 종교개혁자

49) 이하준,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철학. 노동의 종말과 노동 유토피아를 넘어서," 144.
50) 막스 베버/박성수 옮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서울: 문예출판사, 2011), 141.

www.kci.go.kr

루터(Martin Luther)는 노동을 소득과 분리시켰다. 노동을 임금노동과 삶을 위한 인간의 활동을 분리시키는 근대적인 노동개념은 루터에게는 낯선 것이었다.[51] 루터가 생각했던 노동이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인간의 모든 활동이며, 보수와 직급,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등과 상관없이 모든 노동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동일하게 존귀한 것이었다.[52] 볼프(Miroslav Volf)에 의하면 노동은 인간이 삶의 전 영역에서 행하는 활동이며, 하나님의 창조행위는 이 땅에서 인간의 노동을 통해 지속된다. 볼프는 인간의 노동을 임금노동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53] 노동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기독교의 노동개념을 가치지향적인 노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

리프킨은 가치지향적인 노동과 연관하여 노동종말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제 3의 섹터에서 새로운 노동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 3섹터의 노동은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3섹터에서 문화영역과 관련된 직업"과 "사회 서비스에서부터 건강, 교육, 연구, 예술, 스포츠, 여가 활동, 종교, 사회참여 활동"에서 나타난다. 사람들은 이 노동을 통해 "민주주의적 참여", "사회적 연대감" 그리고 휴식 및 놀이를 통한 삶의 즐거움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54] 한편, 울리히 벡(Ulich Beck)은 기술사회가 초래한 노동종말의 상황이 새로운 형태의 시민노동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시민노동이란 노동

51) 강원돈, "기본소득 구상의 기독교윤리적 평가," 「신학사상」(2010) vol. 150, 13(177-215).

52) Hans-Juergen Prien, ***Luthers Wirtschaftsethik*** (Goettingen: Vanenhoek & Ruprecht, 1992), 168.

53) 미로슬라브 볼프/한국신학연구소 편, 『노동의 미래, 미래의 노동』 (한국신학연구소, 1993), 139-148. 그는 인간을 하나님의 노동의 파트너로 간주한다(출 20:11, 창 2장). 인간은 삶의 모든 영역의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협력자(cooperatur Dei)"로 살아간다고 한다.

54) 제레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18.

www.kci.go.kr

의 대가를 받지 않는 시민참여의 자원봉사가 아니며, 시민수당을 받는 노동을 의미한다. 시민수당은 전통적인 의미의 임금이 아니라, 사회적 인정과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는 보상에 해당된다. 시민수당은 노동을 통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의 의미를 공동체 안에서 강화한다. 시민노동은 공공근로와 같은 노동이 아니며, 노동의 종말현상 안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형태의 가치지향적인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55]

AI 시대에서는 노등소득의 양극화, 기술에 의한 노동의 대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대립, 노동자들의 프레카리아트화 그리고 실질임금의 감소가 노동문제로 등장한다. 이 문제 앞에서 요구되는 노동의 형태는 사회적 차원의 가치지향적 노동이다. 여기에서 노동은 삶을 위해 필요한 재화를 구하고 서비스 제공을 받는다. 노동은 자기의 달란트를 실현하는 수단만이 아니라,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을 넘어서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56] 비슷한 맥락에서 레아(D. C. Rea)는 신학적 관점에서 노동이 자기의 생계유지만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레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 노동자는 함께 일하는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의 수준까지 살펴보아야 한다. 다른 노동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임금을 충분히 받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은혜와 선물의 경제에서 "일은 개인의 선이 아니라 공공의 선"이고, "일은 모든 사람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57] 사회적 차원의 노동의 가치는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타자의 삶도 인간다운 "풍성한 삶(요 10:10)"을 향유하게 만드는 노동에서 형성된다. 사회적 차원에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은 단순히 개인의 결심이나 또는 양심

55) 울리히 벡/홍윤기 옮김,『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서울: 생각의 나무, 1991), 220-221.

56) 제레미 리프킨,『노동의 종말』, 349.

57) 다비 캐슬린 레아/홍병룡 옮김,『Working 축복인가, 저주인가? 일』(서울: 포이에마, 2012), 179-181.

www.kci.go.kr

만으로 성취될 수 없다. 그것은 사회제도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정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회윤리적 접근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2. 새로운 노동윤리와 기독교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은 제도적 차원에서 적용할 때 가능하다. 독일은 AI 시대의 사회적 문제, 즉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독일 정부가 실행한 '노동(Arbeit) 4.0 정책'은 사람, 사물 그리고 로봇이 동일한 시스템 안에서 운영되는 4차 산업혁명의 상황 속에서 인간의 노동이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고 인간을 위하는 노동이 되게 한다. 이 정책에서 "직무와 근로조건 그리고 경영관리를 인간적으로 설계하는 '노동의 인간화'는 정책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58]

> 노동의 인간화는 노동의 주체인 인간에 초점을 두어 인간의 동기부여와 만족의 재고, 성장 발전 및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게 노동을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노동의 인간화는 노동하는 사람의 자아실현에 대한 요구, 자율성, 발전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작업조건과 직무를 설계하는 것이다.[59]

'노동의 인간화'는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자의 삶의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양질의 노동의 실현과 새로운 형태의 삶을 추구한다. 여기에서 노동의 유연성은 인간의 삶에 유익을 가져오는 조건 안에서 가능한 것이며, 그 같은 조건 아래에서 좋은 일자리의 창출도 가능하다.[60] 요약

58) 김성국,"제 4차 산업혁명과 독일의 'Arbeit 4.0'의 과제와 전망," 「유라시아연구」 15/1(2018), 120.
59) 위의 논문, 126.

www.kci.go.kr

하면 노동의 인간화는 비인간적인 노동이 인간을 위한 노동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의 인간화는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에 의하면 비인간적인 삶의 조건들을 바꾸고 개혁하는 일은 기독교윤리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가 강조하는 "길-예비"의 윤리는 비인간적인 삶의 조건을 개혁함으로써 복음의 현실화를 전망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윤리이다. 즉, 그리스도인은 삶의 전 영역에서 발견되는 '악한 것'과 '비인간적인 것'을 "선한 것"과 "인간적인 것"으로 변혁하는 사회적 차원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61] 노동현장의 비인간적인 조건을 인간적인 것으로 변혁하는 일은 성서의 "작은 자"(마 25장)들을 위한 책임을 이행하는 윤리적인 실천이 될 수 있다.

비인간적인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일은 사회철학의 용어를 빌리면 "사회의 인간화"라는 과제와 무관하지 않다. 사회의 인간화는 휴머니티의 원리에 입각해서 사회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인간화는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따뜻한 사회운영원리를 추구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교환가치적 관계원리보다는 사용관계적 원리가 강조된다. AI 시대에서는 시간의 문제일 뿐, 나도 언젠가는 대체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한 공유인식이 노등의 핵심가치로 등장한다. 관계적 윤리에 기초한 동류의식과 연대감은 사회의 인간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60) 위의 논문.

61) Dietrich Bonhoeffer, ***Ethik***, hg. v. E. Bethge, I. Tödt, C. Green, DBW 6 (Gütersloh: Chr. Kaiser Verlag, 1992), 155. 스위스의 기독교윤리학자인 리히(Arthur Rich)는 그의 저서, 『경제윤리』를 통해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인간에게 정의로운 제도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경우,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평등을 더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정의는 정태적인 개념이 아니라 '가변적인 개념'이다. Arthur Rich, ***Wirtschaftsethik I.*** (Guethersloh: Guethersloher Verlaghaus Gerd Mohn, 1984), 207. 이에 따르면 AI 시대의 비인간적인 노동현장은 노동의 인간화를 위한 정의의 실현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www.kci.go.kr

"사회의 인간화"의 원칙은 개인이나 또는 소수의 특정그룹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과 함께 공동체의 이익도 고려한다. 이 원칙은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 이익 간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62]

이러한 논의의 사회윤리적 접근은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기본소득은 탈노동과 노동유토피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학문적인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소득은 AI 시대의 잠재적인 실업자들과 실질임금의 감소가 가속화되는 노동자들, 저임금 노동자들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사회적 이슈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의하면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의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서 보편적인 보장소득, 무조건적 보장소득, 개별적인 보장소득을 말한다.[63] 기본소득은 "임금 일부를 대체할 안정적 소득원"이며 "커져만 가는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64] 여기에서 노동은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유익한 활동과 사회적 기여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이해된다. 기본소득은 돌봄 노동, 여성의 가사노동, 환경운동 등과 같은 무급노동의 가치를 사회적 차원에서 인정하는 강력한 지표이다.[65] 기본소득의 찬성자로 유명한 빠레이스(P. Van Parijs)는 기본소득을 위한 "실질적인 자유"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실질적인 자유(real freedom)란 사회적 약자들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자유이며, "자신이 원할 수도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부여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66] 이러한

62) 이하준,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철학. 노동의 종말과 노동 유토피아를 넘어서," 149.
63) https://basicincomekorea.org/all-about-bi_definition/ [온라인자료] (2026.01.07 접속)
64) 이원재, "기본소득제 - 정의 쟁점 전망," 「시선집중 GSnj」 280(2020.7), 7-9.
65) 말콤 토리/이영래 옮김,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2017), 214-215.
66) P. Van Parijs, ***Real Freedom For All: What can Justify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www.kci.go.kr

"실질적인 자유"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소득은 노동종말과 탈노동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더 필요하다. "자유"의 개념은 성서와 신학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기본가치이다.[67] 본회퍼는 자유의 가치를 "타자를 위한 자유"에서 찾는다. "타자를 위한 자유"는 인간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부터 나온다. 본회퍼는 "실질적인 자유"의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이미 그 개념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길-예비"의 윤리는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주고,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주고, 굶주린 자들에게는 빵을 주는 윤리적 실천을 강조한다.[68] 여기에서 본회퍼가 말하는 타자를 위한 자유는 빠레이스가 강조한 실질적인 자유의 신학적인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Press, 1995), 이명헌,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논쟁과 전략의 탐색』(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4), 73.

67) 본회퍼에 의하면 자유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개인의 특정한 소유물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관계성의 개념이다. 자유의 개념은 두 인격 간의 관계로 이해된다. "자유란 다만 하나의 관계일 뿐이며 그 밖의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는 양자 사이의 관계이다. 자유로운 존재는 곧 '타자를 위해 자유로운 존재'이다. …… 단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나는 자유로운 것이다. 어떠한 본질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자유의 개념도 자유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할 수 없다. 자유란 내가 나의 전유물처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 타자를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다." Dietrich Bonhoeffer, ***Schöffung und Fall,*** hg v. E. Bethge, E. Feil, C. Gremmels, W. Huber, H. Pfeifer, A. Schönherr, H. E. Töd, DBW 3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haus, 1989), 58-59.

68) Dietrich Bonhoeffer, ***Ethik***, 155. 출애굽은 자유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은 40년 광야의 길에서 그들에게 "하늘 양식을 비같이(출 16:4)" 내려주셨다. 만나는 광야에서 그들이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고 향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체적인 수단이었다. 동일한 맥락에서 나사렛 예수는 형식적인 자유만을 선포하지 않았다. 그는 실질적인 자유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다. 38년 된 중풍병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오후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하루 일당)을 받은 포도원 일군을 보라. 그들은 그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했던 "실질적인 자유"를 선물로 받았다.

www.kci.go.kr

VI. 나가는 말

제 4차 산업혁명 이후, 기술혁신의 빛을 발하고 있는 AI는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 대중교통 이용, 과제물 작성, 식당 이용, 질병 진단 그리고 직장 업무 등등에서 AI의 도움을 받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다. 인간은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질적으로 다른 삶의 편리함과 노동의 효율성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AI는 밝은 빛만 아니라, 어두운 그림자도 보여주고 있다. 과거와는 다른 노동의 유연성과 불안정성이 가속화되고 있고 심화되고 있다. 개인의 실업을 넘어선 대량 실업이 진행 중이며, 이러한 노동문제의 해결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I는 노동의 혁신을 이루었지만 일자리의 감소와 노동가치의 하락을 가져왔다. '노동의 종말'의 현상은 AI 시대에서 감출 수 없는 특징이다. 또한 AI는 노동 그 자체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하는 탈노동의 사회, 즉 노동 유토피아에 대한 큰 기대를 갖게 한다, AI 시대의 노동문제의 해결은 노동의 새로운 이해, 노동의 인간화 그리고 사회의 인간화를 통해 시작될 수 있다. 오늘의 상황은 새로운 기독교노동윤리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기존의 노동윤리는 필요노동과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가치지향형 노동의 존중,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의 개선,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간적인 노동조건의 형성을 지향해야 한다. 노동의 유연성과 불안정이 제기하는 문제와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의 개혁을 지향하는 "독일 아르바이트 4.0"의 정책은 한국 상황의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AI 시대에서 인간의 삶의 자리는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는 따뜻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자유"가 없는 자유에 대한 강조는 추상적인 구호가 될 가능성이 많다.

성서와 신학은 "실질적인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타자를 위한 자유는 실질적인 자유를 위한 신학적 기초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유

www.kci.go.kr

와 돌봄은 나사렛 예수의 가치지향형 노동의 구체적인 형태이다.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해되는 노동현장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협력하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이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행위에 참여한다. 그 참여의 범위는 임금노동의 영역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전 영역을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가치지향형 노동, 노동의 인간화(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의 개혁) 그리고 사회의 인간화(사회제도 기초한 인간적인 삶의 조건의 형성)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무급노동과 가치지향형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기본소득은 일자리의 감소 또는 실업과 노동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오늘의 AI 시대는 기본소득의 토대 위에서 형성되는 기본사회,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사회"[69]까지 요구하고 있다. 성서와 신학은 이와 같은 견해를 비평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윤리의 본질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70]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AI 시대의 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노동윤리가 필요한 시간이다.

69) 노규성, 『AI 뉴딜』, 224. 노규성은 "AI 기본사회"를 구현하는 전략을 "AI 뉴딜" 정책의 구상에서 찾는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AI 뉴딜이 "포용적 혁신 성장"을 지향하고, 기본사회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책, 228-231.

70) Dietrich Bonhoeffer, *Ethik*, 372.

www.kci.go.kr

참고문헌

강원돈. “기본소득 구상의 기독교윤리적 평가,” 「신학사상」 150(2010), 177-215.

곽호철. “실낙원에서 복낙원으로의 귀한: 인공지능과 노동, 그리고 기본소득,” 「신학사상」 151(2018), 109-140.

김기석. “기독교본질에 대한 인공지능의 도전 및 대처방안.” 「개혁주의 이론과 실천」 27(2024), 59-96.

김동환. “AI(인공지능)에 대한 신학적 담론의 형성 및 방향 모색.” 「신학연구」 60(2016), 35-60.

김성국. “제 4차 산업혁명과 독일의 ‘Arbeit 4.0’의 과제와 전망.” 「유라시아연구」. 15/1(2018). 117-135.

김영일. 『윤리적 삶의 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김종진. “디지털 플랫폼노동 확산과 위험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125(2020)

김희자. “융합문화시대의 기독교 인공지능 시스템교육.” 「기독교교육정보」 40(2014), 1-37.

장흥길 · 홍인종. 『워라벨 시대의 행복한 일터목회』 서울: 한지터, 2019.

노규성. 『AI 뉴딜』. 파주: 광문각출판미디어, 2025.

닉 서르닉/심성보 역. 『플랫폼 자본주의』. 서울: 킹콘북, 2020.

다비 캐슬린 레아/홍병룡 옮김. 『Working 축복인가, 저주인가? 일』. 서울: 포이에마, 2012.

막스 베버/박성수 옮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문예출판사, 2011.

말콤 토리/이영래 옮김.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서울: 생각이음, 2017.

미로슬라브 볼프. 『노동의 미래, 미래의 노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MBN 일자리보고서팀. 『제 4의 실업』. 서울: 매경출판, 2017.

오나영. “AI 시대의 노동과 불평등.” 「월간 한국노총」 611(2025)

엄효진 · 이명진. “인공지능(AI) 기반 지능정보사회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 경제사회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Information Society & Media*. 21/2(2020), 1-20.

www.kci.go.kr

이광석. “AI 시대의 유령 노동. 21세기형 인형 눈알 붙이기. 인공지능 자본주의의 또 다른 예속 경계할 때.”「신문과 방송」(2021.2), 71-75.

이명헌.『복지국가와 기본소득. 논쟁과 전략의 탐색』.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2014.

이민화. “인공지능과 일자리의 미래.”『국제노동브리프』. 14(2016).

이봉석. “인공지능과 로봇기술로 인한 노동종말의 시대: 의식개혁을 위한 기독교노동신학의 정초.”「신학과 실천」. 93(2025), 735-761.

이원재. “기본소득제 - 정의 쟁점 전망.”「시선집중 GSnj」2020.7). 280.

이하준. “A 시대의 새로운 노동철학. 노동의 종말과 노동 유토피아를 넘어서.”「철학논총」116/2(2024), 131-153.

울리히 벡/홍윤기 옮김.『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 서울: 생각의 나무, 1991,

윤동열. “AI 디지털 전환시대, 노동시장과 일자리 변화.”「월간 공공정책」vol. 237(2025), 29-31.

정균성.『AI 시대, 함께 살아가는 법.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로』. 서울: 프로북스, 2025.

정윤희. “불안정은 영혼을 잠식한다. 노동의 불안정성과 프레카리아트의 존재론.”「독일언어문학」. 91(2021), 283-307.

제레미 리프킨/이영호 역.『노동의 종말』. 서울: 우리 민음사, 2005.

클라우스 슈밥/송경진 역.『클라우스 슈밥의 제 4차 산업혁명』. 서울: 메가스터디 북스, 2016.

Bonhoeffer, Dietrich. *Ethik*, hg. v. E. Bethge, I. Tödt, C. Green, DBW 6. Gütersloh: Chr. Kaiser Verlag, 1992.

_____. *Schöffung und Fall,* hg v. E. Bethge, E. Feil, C. Gremmels, W. Huber, H. Pfeifer, A. Schönherr, H. E. Töd, DBW 3.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haus, 1989.

Rich, Arthur. *Wirtschaftsethik I.* Guethersloh: Guethersloher Verlaghaus Gerd Mohn, 1984.

Prien, Hans-Juergen. *Luthers Wirtschaftsethik.* Goettingen: Vanenhoek & Ruprecht, 1992.

Parijs, P. Van. *Real Freedom For All: What can Justify Capitalism.* Oxford niversity Press, 1995.

www.kci.go.kr

https://basicincomekorea.org/all-about-bi_definition/ [온라인자료] (2026.01.07 접속)

논문투고일: 2026년 03월 15일
심사개시일: 2026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6년 04월 08일

www.kci.go.kr

• 국 문 초 록 •

제 4차 산업혁명 이후, AI는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AI 시대에서 노동의 유연성과 불안정성은 가속화되고 있고 심화되고 있다. 노동문제의 해결은 노동의 새로운 이해, 노동의 인간화 그리고 사회의 인간화에서 나온다. 기존의 노동윤리는 필요노동과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노동의 가치를 평가한다. 이제는 가치지향형 노동의 존중,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의 개선,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간적인 노동조건의 형성을 지향해야 한다. 성서와 신학은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타자를 위한 자유는 '실질적인 자유'의 신학적 기초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유와 돌봄은 가치지향형 노동의 형태이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행위에 참여한다. 여기에서 가치지향형 노동의 존중,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의 개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정책에 기초한 기본소득은 큰 설득력을 갖는다. AI 시대에서 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천하는 새로운 기독교노동윤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주제어: AI(인공지능), 노동문제, 노동의 인간화, 기본소득, 기독교노동윤리

www.kci.go.kr